21세기 태양

3

속도전



6.15주간 편집부



속도전

6.15주간 편집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주체61(1972)년 8월 6일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77(1988)년 5월 15일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평안북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9(2000)년 1월 24일, 27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주체61(1972)년 8월 6일

...

어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속도가 빠르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당이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주체적인 창작원칙입니다.

작품창작에서 속도가 빠르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정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거나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창작실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작품 하나를 10년이나 20년씩 걸려 써내는 그런 질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속도전을 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다른 나라 소설에 비하면 우리 소설은 볼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대주의자들이며 수정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사대주의, 수정주의가 문학예술부문에 많기때문에 그것을 뿌리뽑기 위하여 영화부문에서 전형을 하나 창조함으로써 속도전을 벌리면 질을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조할 때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조하는데서 얻은 결론은 종자를 바로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조건에서는 속도전을 벌려야 질이 보장된다는것입니다.

종자를 바로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속도전을 벌려야 질이 높아진다는것은 실천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진리이며 그것은 이미 영화부문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총산하 일부 창작가들은 속도전에 대한 방침을 받아물지 않고 잡소리를 하고있습니다.

...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77(1988)년 5월 15일

올해는 공화국 창건 40돐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3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공화국 창건 40돐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35돐을 계기로 전국영웅대회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국영웅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 인차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미제와 싸워 이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국보위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영웅적 위훈을 세우도록 힘있게 불러 일으키시였습니다. 35년전에 열린 첫 영웅대회는 우리 인민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뚫고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영웅대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당의 영도밑에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 투쟁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있게 다그치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말살해보려는 망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사회주의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켜 보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세력을 규합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핵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시종일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태평양전략의 실현을 가로막는 불패의 성벽으로 날로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우리의 혁명적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미치는 것을 겁나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시대와 역사 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발악적 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

로써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벌리고 있는 2백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하여야 하며 2백일전투가 2천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며 세계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전국영웅대회를 열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진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었으며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대를 이어 수많은 영웅들이 자라났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강대한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유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건에서 장구한 기간 굴함없이 싸운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인민의 수령이 영도하는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전사로서의 혁명적 의리를 끝까지 지켰으며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습니다.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공적은 우리 혁명의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보나 투쟁정신으로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며 영웅의 귀감입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원로로서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항일의 혁명열사들이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진행한 가장 준엄한 투쟁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벌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습니다. 갓 해방된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강대한 미제와 싸워 이긴 것은 참으로 기적이였습니다. 그때 적아간의 역량관계는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현대적 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육해공군무력을 동원하고도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 들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청소한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이 이러한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은 것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영웅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어 사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체험한 우리 인민들은 조국이야말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바쳐 보답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는 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조국의 한치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원쑤들과의 가렬한 결전장에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의 땅크와 군함을 까부수고 가슴으로 화구를 막아 전투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인민군 용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시기에 후방인민들도 잘 투쟁하였습니다. 후방인민들은 여성들과 늙은이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다 떨쳐나서 전선을 원호하고 자기의 공장과 마을을 지키면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여 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로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영웅적 인민으로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항일투사들은 잃었던 조국을 찾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면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화국이 낳은 새세대 영웅들인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을뿐아니라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영웅적 위훈을 떨치었습니다.

세계전쟁역사에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이 다 잿더미로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의 역사에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완전한 페허우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 세우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한 예도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파괴의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세웠다면 우리 인민은 보람찬 건설의 역사에서 영예로운 기록을 창조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방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민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줍니다.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 영웅주의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배출된 우리의 영웅들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한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며 집단적 혁신운동의 기수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모두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여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데 역사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많이 자라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새형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숨은 영웅들처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숨은 영웅들의 대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방침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증하여 줍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유명무명의 영웅들도 많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들이 세운 영웅적 위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항일혁명투쟁을 시원으로하여 우리 영웅들의 대열은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대를 이어 계승되고 발전되어온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는 오늘 대중속에서 생활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영웅으로 되어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공동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을 보위하는 싸움에서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 전투영웅으로 될 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혁신적 위훈을 떨치는 노력영웅으로 될 수 있으며 자기의 초소를 주인답게 묵묵히 지키면서 값높은 공헌을 하는 숨은 영웅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 것은 자주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

예로 됩니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 것만큼 생활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데 따라 평가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남겨 놓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무의미하게 한생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입장입니다.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게 되며 그것은 미래가 없는 생활입니다. 개인의 한생은 끝이 있지만 사회와 집단은 영원히 존재하며 발전합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은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 것이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보람있는 생활입니다.

사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한몸의 안락만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생활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기주의적 생활관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고상한 희생성이나 영웅적 행동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과는 비할 바 없이 귀중하고 영원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영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은 다같이 귀중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건전하여야 사회정치적 활동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님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는 당과 수령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만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하여 값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웅적으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영웅적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값없이 피를 흘리고 보람없이 한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우리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 누구나 다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영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성스러운 임무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고지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공산주의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 해방된 인민들이 모두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조국의 절반땅에서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4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수난의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영웅적 조선인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역사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이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이 영도하는 이 장엄한 투쟁에서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자기 한생의 수치로 될 뿐아니라 후대에까지 치욕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웅적 투쟁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영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몸소 앞장에서 이끌어 오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 주시고 근로자들을 천리마 기수로, 영웅으로 키워주시었으며 숨은 영웅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을 따라 배워 오늘의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옳게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함으로써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영웅적 투쟁 기풍을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반드시 현대적인 과학기술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임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영도밑에 지금 벌리고 있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대중운동입니다. 그러나 당조직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로부터 아직도 이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 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모든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위훈을 세워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며 철저히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영웅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영웅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영웅의 대열을 끊임없이 늘여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 앞에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이끌어 주어 그들이 계속 꽃을 피워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웅들을 존중하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영웅대회준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웅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영웅들, 그리고 숨은 영웅들이 모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 앞에 위훈을 세운 공로자들과 혁신자들도 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영웅대회가 큰 규모에서,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영웅대회를 통하여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평안북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9(2000)년 1월 24일~27일

최근시기 우리 당은 토지정리사업을 농업혁명의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당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지금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 보니 평안북도 태천군의 한드레벌토지정리를 규모 있고 시원스럽게 잘하였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한드레벌이 천지개벽되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 졌습니다. 이제는 옛날 지주가 토지문서를 가지고 한드레벌에 와서 자기 땅을 찾자고 하여도 찾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한드레벌이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되였습니다. 평양시에서 한드레벌토지정리를 맡아 하였다는데 잘하였습니다.

한드레벌을 정리하여 옛 모습을 찾아 볼수 없게 되였다고 하여 벌이름을 다르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드레벌이라는 이름은 지난 날 이곳 농민들이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에 물을 한드레씩 퍼서 농사를 지었다는데서 유래되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그냥 둬두어야 오래전부터 한드레벌이라고 부르던 땅이 우리 시대에 천지개벽되였다는것을 후세에 길이 전할수 있습니다. 한드레벌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부르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이 벌이 원래부터 그렇게 잘 정리되여 있은줄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한드레벌이라는 이름은 고치지 말고 그냥 둬 두는것이 좋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은 벌이름이나 고치고 멋을 부리기 위하여 하는것이 아닙니다.

곽산군에서도 토지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군에는 해안지대를 내놓고는 돌이 많고 메마른 땅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정주시와 룡천군을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 군들에서 다 토지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난해에 평안북도토지정리총계획도를 볼 때에는 작업량이 방대하여 아득하게 생각되였는데 몇달사이에 거의다 해제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였습니다.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각도에서 온 돌격대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힘겨운 전투를 벌려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이 논두렁을 미장칼로 다스려 미끈하게 만들어 놓았다는데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토지정리를 통이 크게 해제껴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평안북도의 중간지대에서도 이제는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처럼 토지정리를 잘한것을 수령님께 보여 드리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안북도의 토지를 정리한것만 보아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잘 살 날이 오리라는 래일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바둑판처럼 규모 있고 시원스럽게 한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규모의 토지정리는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한드레벌처럼 토지정리를 통이 크고 멋 있게 한것이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우월성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남조선사람들이 한드레벌에 와 보면 깜짝 놀라며 대단히 부러워할것입니다. 남조선은 벌이 많은 곡창지대이지만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여 있기때문에 우리처럼 토지정리를 할수 없습니다. 토지정리를 이렇게 잘해 놓은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토지정리를 하기전에 한드레벌을 촬영해둔것이 있으면 얼마나 몰라 보게 달라졌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을것입니다.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농촌에 펼쳐 진 위대한 전변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일대시위로 됩니다. 그것은 또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철석 같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강원도와 평안북도에서 토지들을 정리한것을 보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의지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일군들이 15~20년전부터 토지정리사업을 힘 있게 내밀었더라면 지금쯤은 이 사업을 끝낼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일군들이 토지정리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을철이 되면 늘 토지정리와 논갈이를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군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의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일군들이 토지정리방법도 알고 그 우월성도 알도록 하시였지만 그들이 토지정리사업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일군들이 간석지를 개간하는 사업에는 힘을 넣으면서도 품을 적게 들이고 많은 토지를 얻을수 있는 토지정리사업에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간석지개간도 하여야 하지만 토지정리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다. 간석지를 개간하여서는 인차 덕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간석지개간을 하지 말라는것은 아닙니다. 간석지개간은 토지정리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토지정리사업을 일관성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농촌들에는 조상대대로 내려 오는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정리사업이 제일 뒤떨어지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강원도를 먼저 추켜 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다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 사업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입니다. 우리는 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토지를 정리하면 알곡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습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알곡증산의 큰 예비는 토지정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토지를 정리하여 새땅을 얻을수 있는 예비가 많습니다. 지금 다락논이 많은데 그것만 정리하여도 부침땅을 적지 않게 얻을수 있습니다. 다른 도들에는 물론, 평양시주변에도 토지정리를 하여 새땅을 얻을데가 많습니다. 강동쪽으로 나가는 도로주변에 있는 협동농장들의 토지만 정리하여도 많은 땅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토지정리를 잘하여 새땅을 많이 찾아내면 그만큼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농사를 기계로 지으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입니다. 나는 나라의 경제사정이 좀 펴이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려고 합니다. 농촌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아무리 많이 보내주어도 토지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을 낼수 없고 농사일을 기계화할수 없습니다. 토지정리를 하여 논과 밭들을 다 규격포전으로 만들어놓아야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수 있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토지를 정리하는것은 새땅을 얻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펼친 토지정리사업은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토지의 면모와 구조를 개변시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복후 토지개혁을 하여 지주의 소유로 되여 있던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만들었지만 토지의 면모와 구조에서는 크게 달라 진것이 없습니다. 지난 날에는 토지정리를 지금과 같이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통이 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단위들에서 토지정리를 한것을 보면 기껏하여 폭탄구뎅이 같은것이나 메우고 물길을 좀 째는 식으로 부침땅이 생긴대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뙈기논밭들은 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남겨 놓은 유물입니다. 봉건시대로부터 대대로 내려 오던 뙈기논밭들을 큰 규모의 규격포전으로 만드는것은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청산하고 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입니다.

토지정리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토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일군들은 토지정리사업을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 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당의 방침대로 토지정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할 때에 처음에는 논배미들을 크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고산군 란정리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토지정리현장을 돌아 보았는데 논배미들이 작고 어느것이 정리한 논이고 어느것이 정리하지 않은 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토지정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논두렁을 얼마 줄일수도 없으며 몇년 못 가서 토지정리사업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정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논배미 하나가 1, 000평이나 800평정도 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정리를 뚝이나 몇개 없애는 식으로 쬐쬐하게 하지 말고 지금 하는것과 같이 10년, 50년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국가토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토

지정리를 하나 하여도 우리 대만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할 때에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드는것과 함께 물홈들도 메꾸고 물길과 도로들도 정리할것은 정리하고 새로 낼것은 규모 있게 새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땅을 더 많이 얻어 낼수 있고 영농사업에서 설비, 자재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기계수단과 로력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정리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모가나게 해제껴야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한개 도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면 기름을 대주는것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토지정리를 한꺼번에 다하려면 기름을 대주기 아름차지만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 먹듯이 한개 도씩 해제끼는데 필요한 기름은 얼마든지 대줄수 있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을 도별로 순차를 정해 놓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면 설계를 선행하는것을 비롯하여 토지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사업도 착실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먼저 시작하여 끝내고 지난해 가을부터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계획한대로 계속 힘 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5월까지 평안북도에서는 5만정보의 토지정리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모내기철전으로 끝낼수 있게 필요한 기름을 대주어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하는데 기름을 보장해 주는것이 중요하지만 망탕 주어서는 안됩니다. 처음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할 때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 기름소비기준을 옳바로 잡을수 없었지만 이제는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해보았기때문에 기름이 얼마쯤 든다는것을 알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얼렁뚱땅하여 기름예비를 조성하려고 기름을 많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올해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한 다음 농사를 잘 지어야 토지를 정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 줄수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일수 있습니다. 토지를 정리하여 놓고 농사가 잘 안되면 토지정리를 한 보람이 없게 됩니다. 토지정리를 하여 천지개벽이 되였다고 선전만 하지 말고 일을 잘하여 알곡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를 하여 수천정보의 새땅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만도 알곡을 몇만톤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토지정리를 끝내고 지난해에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그 전해에 비하여 2.5배나 더 냈으며 식량을 다른데서 실어 오느라고 소비하던 기름도 많이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고 합니다. 평안북도는 강원도보다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도 많지 않고 집짐승을 많이 기르지 못하기때문에 거름원천도 적습니다. 평안북도는 인구도 많고 곡창지대인데다가 토지정리까지 잘하면 알곡생산이 쑥 올라 갈수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알곡생산계획을 최고수확년도에 기준하여 세웠다는데 이제는 그만한 알곡을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당창건 55돐이 되는 올해에 알곡을 많이 생산하겠다고 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보니 평안북도에서 정초부터 새해농사차비를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강원도농사를 도와 준것처럼 평안북도의 올해농사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올해에 알곡을 최고수확년도만큼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정리한 논밭들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토지들을 정리하면 지력이 떨어지기마련입니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토지를 잘 정리하여도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습니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일군들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지 않고서는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합니다. 군중적운동으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땅을 걸구어야 합니다. 지금 유기질비료원천이 적기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한다는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군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 일으키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나 두엄을 많이 생산하여 새로 정리한 부침땅들에 계획한대로 내야 하겠습니다.

평안북도에 화학비료도 집중적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새로 정리한 부침땅이 생땅과 같아 진것만큼 두엄과 함께 화학비료를 쳐야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습니다. 새로 정리한 부침땅들에 한 3년동안 화학비료를 대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 강원도와 같은 기준에서 새로 정리한 5만정보의 부침땅에 칠수 있도록 화학비료를 대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 줄 화학비료량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안북도에 뜨락또르도 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토지를 규모 있고 크게 잘 정리한것만큼 좋은 뜨락또르를 주어 농사도 잘 짓고 영농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에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는 뜨락또르를 160대 주겠습니다. 간석지 같은데는 60마력짜리 뜨락또르보다 81마력짜리가 더 좋을것 같다는데 마력수가 다른 뜨락또르를 적당히 배합하여 주는것이 좋습니다. 지난해에 대홍단군종합농장에도 좋은 뜨락또르를 많이 보내주었는데 그곳 일군들은 마력수가 적은것보다 많은것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평안북도에 주는 뜨락또르 160대가운데서 60마력짜리와 81마력짜리를 몇대씩 주는것이 좋겠는가 하는것을 잘 타산하여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과업을 준대로 부속품이나 다이야가 없어 서 있는 뜨락또르를 살려 쓰기 위한 투쟁도 계속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평안북도의 농사에 필요한것은 강원도에 주는 기준대로 주어야 합니다.

새로 정리한 부침땅의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도 대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를 처음에 대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를 처음에 4만정보 하기로 하였다가 1만정보 더 하여 5만정보 하기로 한것만큼 그에 해당한 기름과 세멘트, 강재를 더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끝낸 다음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황해남도는 우리 나라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곡창지대입니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잘하면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황해남도에서 물길공사를 하면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벅적 떠들었지만 물길공사를 한 다음에도 알곡생산을 얼마 늘이지 못하였습니다. 황해남도에서도 알곡생산을 늘이려면 결정적으로 토지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에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나기전까지만 하여도 남조선괴뢰들의 통치지역에 속하여 있던 군이 여러개 있는것만큼 토지정리를 잘해 놓으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 줄수 있습니다.

최근에 료해한데 의하면 황해남도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황해남도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애 쓴것을 보아서라도 잘 도와 주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끝낸 다음 다리 펼 생각을 하거나 다른 도의 토지정리를 하려 하지 말고 올해 가을부터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하는데 달라붙어야 합니다.

황해남도에 토지정리를 할 면적이 한 5만정보 되겠다고 하는데 실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잘 따려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은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것만큼 더 쉽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평안남도의 토지정리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끝낸 다음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와 토지정리를 동시에 하기는 곤난합니다. 먼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해제끼고 토지정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잘하여야 합니다. 그 물길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리득을 볼수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만 하여도 알곡을 한 30만톤 더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알곡이 30만톤이면 적은 량이 아닙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하면 물이 저절로 흘러 논밭을 관수하게 되므로 숱한 양수장들이 없어 져 많은 전동기와 변압기, 양수기를 쓰지 않게 되며 전력도 적지 않게 절약하게 됩니다. 전동기와 변압기를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그것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하여 나오는것을 주어도 될것입니다. 아마 대안전기공장에서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하여 쓰지 않게 되는 수량만큼 전동기와 변압기들을 생산하자면 자재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릴것입니다. 올해 공동사설에도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되여 있는데 경제사업은 타산을 잘하여 실지 덕을 볼수 있고 빨리 은을 낼수 있는것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에서는 물길굴뚫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빨리 끝내는것이 중요합니다. 물길굴을 뚫자고 하여도 일정한 기일이 걸려야 할것입니다. 물길굴을 뚫는데 필요한 중장비들은 인차 해결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천-태성호물길굴을 뚫는데 공병부대에서도 동원되여야 합니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인민군대가 동원되여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도와 주었으며 지금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인민군대가 달라붙어 해제끼니 할수 있습니다.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은것도 인민군대가 이 사업을 틀어 쥐고 한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 있습니다. 앞으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도 인민군대에서 도와 주게 하자고 하는데 공병부대에서 가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병부대에서 다른 건설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개천-태성호물길굴을 뚫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공병부대에서 물길굴을 뚫는데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토지정리를 하기 위한 투쟁도 벌려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기계를 가지고 국가에서 해줄것만 바라지 말고 지방들에서 사람의 힘으로라도 근기 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려 논밭들을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토지정리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속도전

정치사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입니다.》

속도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 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와 문화예술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새롭게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다. 속도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 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 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 인연이 없다. 속도전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을 벌리는 바로 여기에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길이 있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서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정신, 비상한 혁명적정력을 구현하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속도전을 벌려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또한 속도전을 적극 벌려야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과의 치렬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속도전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가장 선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것은 속도전을 적극 벌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속도전을 하려면 이와 함께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속도전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대중을 옳게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드는것이며 그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것이다. 속도전을 위한 사상, 기술, 지도의 이 세가지 조건가운데서도 기본은 사상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기술문제도 지도문제도 풀릴수 없다. 구경은 모든것이 다 사상문제이다. 그러므로 속도전은 결국 사상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

정치사전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 내며 철도전기화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공사를 다그치기 위하여 조직한 청년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무어 주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 주신 돌격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5년초에 사로청원들로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조직하시여 철도전기화공사장과 새 철길건설장, 조차장건설장들에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어 주신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5년 2월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충성의 궐기모임을 가지고 불꽃 튀는 건설전투의 첫 자욱을 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 시기 청년돌격대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시고 돌격대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여러차례 축하문과 감사문까지 보내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중요한 대상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파견하여 주시였으며 그들이 담당한 공사진행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늘 세심히 보살피시고 깊은 배려를 돌려 주시였으며 귀중한 선물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거듭 안겨 주시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조직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많은 사로청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 냈으며 평양-마동사이, 희천-고인사이, 청진-무산사이, 단천-검덕사이, 길주-혜산사이, 대동강-신성천사이, 신안주-희천사이, 신성천-장사사이, 평양-남포사이, 고원-봉산사이 철도전기화공사와 구장-팔원사이 새 청년철도건설 그리고 국제친선전람관, 삼지연혁명전적지, 신파혁명사적지, 창광원, 평양제1백화점, 인민대학습당,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 등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과 중요한 대상건설에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오늘 청년들을 실천투쟁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키워 내는 정치적부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앞장서 풀어 나가는 돌격대로 이름 떨치고 있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당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쳐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완수를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시기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빠져 이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량면전술을 쓰면서 침략의 예봉을 계속 아세아에 돌리고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가담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작전계획까지 만들어놓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자기들의 잔명을 전적으로 외세에 의탁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군사분계선일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극악무도한 ≪긴급조치≫를 련발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한층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안팎의 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변화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당 제 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계속 혁신하여 가까운 앞날에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와 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는 가장 진공적인 방침으로서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나라는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고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진지, 북반부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고무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일떠서게 될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있을 때 주체조선에서 벌리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 일대 시위로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쑤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인민들에게 큰 고무를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총진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진군운동에서 당면하게 힘을 집중하여야할 주요전선은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전선이 라고 가르치시였다.

이 5개전선은 사회주의 대 건설의 전반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전선들로서 이 전선들에 힘을 집중하여야만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빨리 점령할수 있으며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도 짧은 기간에 점령할수 있는 담보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다.

기본건설전선은 중심고리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가운데서도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고리는 기본건설전선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본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4)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0～5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규모 야금기지건설, 철 광산들의 확장과 새로운 개발, 동력, 화학, 건재, 경공업기지들의 대대적인 확대와 같은 방대한 건설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업전선에서의 성과가 6개년계획의 수행과 다음번 전망계획의 수행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창설된 현대적인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방대한 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농업전선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송전선과 수산전선에서도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또한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며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출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은 국가가 생긴이래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것으로서 우리 나라를 인류역사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게 하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추도록 한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공고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한 것이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애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는 인민적시책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보다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것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한층 고무하였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끝없는 경탄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사회주의 대 건설사업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8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비약을 이룩하며 우리 나라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참으로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8차전원회의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통찰하시고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모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우리 당과 인민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령도예술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였다.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의거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전례없는 빠른 속도와 높은 질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행해낼수 없었다.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알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전투형식인 속도전을 최대한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여기에 조직지도사업을 잘 안받침할데(어떤 일이나 행동 또는 리론 같은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내적으로 받쳐주는것)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당은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당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쳐나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정치선전사업과 경제선동사업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생산자대중이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게 하였다.

당은 전당적으로 벌어지는 당중앙위원회 편지토의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실지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전투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나타내도록 이끌었다.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3대혁명소조들로 하여금 실지 생산투쟁을 하고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일군들과 합심하여 당 제 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뿌리뽑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도록 이끌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며 우리 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하루 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당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여기에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안받침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급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생산과 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적보장사업과 지휘를 정확히 하도록 이끌었다.

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국가경제기관일군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리며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당은 로력문제를 푸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로력문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중요하게 제기되여왔지만 류례없이 거창한 새 건설을 수많히 예견하는 사회주의대건설과 관련하여 더욱 긴장하고 빨리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당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로력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많은 로력을 사회주의 대 건설의 주요전선을 지원하는데 돌리도록 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랑비를 철저히 없애고 비생산로력과 간접로력을 대담하게 줄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며 그리고 한사람이 두를,세몫씩 맡아하는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더 많은 로력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새 전투장들에 보내도록 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었다.



당중앙의 70일전투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당중앙은 대중의 고조된 혁명적열의에 기초하여 년말을 앞두고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는 ≪70일전투≫를 조직지도함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여 영광의 1974년을 더욱 빛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1974년 11월과 12월에는 공업총생산액이 각각 그 전해의 같은 달에 비하여 148%, 152%로 늘어났다.

이것은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쳐온 우리 나라 공업력사에도 일찌기 없었던 놀라운 속도였다.

이 거세찬 흐름속에서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비롯한 대 야금기지, 전력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들을 개건, 확장, 신설하는 대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업전선에서도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75년에도 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의 5개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려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우리 당창건 30돐이 되는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 점령할것을 호소하시고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0차전원회의에서 그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전원회의를 전후하여 전국농업대회, 공업열성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을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로 다시금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당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의 우수한 일군들을 각 도와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당, 전국이 달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더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나갔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단행본, 20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쳐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더 높은 목표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내세웠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켜 지도하여나갔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 운동이 제기한 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였으며 이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3대혁명소조를 적극 내세웠다.

당이 지펴올린 검덕과 청산리에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봉화는 삽시에 온 나라에 타번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 빨리 파급되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전개된 이 대중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였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마저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이미 점령한 다른 고지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6개년계획과제들을 훨씬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6년 10월과 1977년 4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2차전원회의와 제 13차전원회외에서 제시하신 발관개의 완성, 다락밭건설, 토지 정리와 개량, 치산치수, 간석지개간을 내용으로 한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주체농법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새로운 대비약

조선노동당략사 ≪70년대 속도전≫

인민경제 모든 부분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련이어 새로운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수행하는 력사적승리가 이룩되였다.

6개년계획기간 우리의 공업전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다.

1976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2.5배로 늘어났으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6배, 소비재생산은 2.4배로 장성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 공업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년평균장성속도를 훨씬 넘어 16.3%라는 놀라운 속도로 달렸다.

1976년에 우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5일동안에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계획수행기간 주체공업건설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우리 공업의 주체성이 더한층 강화되고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3대기술혁명이 다그쳐져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고 채취공업과 금속공업을 비





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생산공정들의 종합적 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과업실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경리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은 전면적인 현대화, 공업화의 새로운 단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6개년계획의 700만톤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을뿐아니라 련이어 대풍작을 이룩하여 1976년에는 8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하는데 이르렀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의 후과가 심해지고 농업위기, 식량위기가 휩쓰는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식량문제가 여유있게 해결되였다.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또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으며 인민생활분야에서도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6개년계획기간에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8배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여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물건값이 대폭 떨어지고 농촌들에서 뻐스화와 수도화, 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였다.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열매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로선과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의 불패의 생활력을 확증하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또다시 시위하였으며 주체조선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력은 더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힘찬 진군을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북반부혁명기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보다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세계를 휩쓴 경제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온 6개년계획수행의 자랑찬 승리는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경제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6개년계획의 령마루우에 높이 휘날린 승리의 기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과 공포를 주고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면서 빨리 전진하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는 일시적인 긴장성이 조성 되였다.

당은 생산의 빠른 장성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튼튼히 준비를 갖춘 우리 당과 인민은 1978년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인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속도전

주체사상 총서 7권 ≪제4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원칙과 전투형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원칙과 함께 속도전의 원칙, 전투형식을 견지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입니다≫ (**김정일**).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방식, 일본새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위하여 옳게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투적인 사업조직방식과 일본새를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며 수백, 수천만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 수행되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로부터 모든 사업을 전투적인 방식과 일본새로 밀고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만일 경제건설사업을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보면서 그것을 전투적인 방식과 일본새로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답보와 침체를 면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경제를 성과적_B.로 건설해나갈 수 없다.

속도전은 바로 경제건설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 일본새로 밀고나가 가장 높은 속도와 가장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맡겨진 과정을 최단기간내에 가장 빨리 수행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에서는 제기되는 과업을 늦잡지 않고 지체없이 포치하며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여 시작한 일을 중단과 답보 없이 불이 번쩍나게 해제낀다.

속도전은 또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제기된 과

업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정확한 과녁을 설정하고 인적 및 물적 역량을 중심적인 과업들과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시키며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단시작한 일은 하나씩하나씩 끝가지 해제끼게 한다. 그리하여 속도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한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김정일)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사업에서 높은 속도와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속도전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빨리나간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 속도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속도전에서의 높은 속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질을 동반하는 속도이며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속도이다.

이처럼 속도전은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을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입니다.≫(김정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만큼 그것은 근로대중의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사업전개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속도전은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을 가장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경제이며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는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도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속도전은 바로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혁명적 사업전개원칙이며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선구자로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사랑과 충성의 40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끄시는 문학예술혁명은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은 혁명이기도 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지펴올리시어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된 천리마운동의 정신과 기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 속도전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로 발양시켜 모든 일을 불이 번쩍나게 가장 빨리 끝내면서도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영도자님의 정력적인 영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단되였다.

1970년 2월 초 어느날이였다.

그분께서는 한 연출가(영화감독)를 집무실로 부르시어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예술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껴 영화예술분야에서부터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속도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아직은 그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참신한 용어가 연출가에게 준 충격은 컸다. 시대의 거센 흐름과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책은 언제나 강인한 힘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법이다. 하물며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창작전투형식인 속도전을 벌일데 대한 첫 과업을 받아안은 그 연출가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 연출가만이 아니였다. 이 창작과제를 받은 성원들 모두의 심정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며칠후에 그분께서는 영화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영화제작단의 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벌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들은 이미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살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서도 전격전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야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의 속도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창

작단의 모든 성원들이 다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며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 자각과 충실성에 기초한 강한 규율이 영화창작에서 질과 속도를 보장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라고 가르치시였다.

영화예술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형식을 창조하는 역사적인 위업의 선두에 내세워주신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연극작품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찬 군사정치활동에 당황망조한 일제가 무고한 조선청년들을 ≪자위단≫에 끌어들여 제놈들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던 1930년대 후반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운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인 갑룡이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생활을 파고 들면서 일제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길만이 살길이라는 사상을 보여주는 심오한 역작이다. 영화에는 갑룡이가 사랑하는 처녀 금순이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장가밑천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일제의 군수목재를 조달하는 처서판에 가서 고역을 당하는 생활, 자위단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이 일제의 총알받이가 되어 조선인민혁명군 ≪토벌≫에 내몰리는 장면, 남녀노소 가림없이 끌려가 채찍아래 혹사당하다가 목숨까지 빼앗기는 포대공사장 장면을 비롯하여 야외에서 촬영해야 할 것이 많았다. 이런 야외촬영시에 제일 애로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긴요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열차이용과 숙식조건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김정일**영도자님이시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철도부에 과업을 주어 침실과 식당, 분장실과 작업필름을 볼 수 있는 영사실, 창작실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촬영기재며 소도구들을 보관할 방까지 일식으로 꾸려진 촬영용 특수열차를 만들어내게 하시었다.

사실 이동촬영을 한번 떠나려면 열차물림수속으로부터 인원들과 촬영용 기재, 의상, 소도구들을 나르는 일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숙식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르기까지 숱한 품이 드는데 장치사나 보장성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분께서는 이런 고충을 풀어주시려고 생활조건과 촬영작업에 편리하게 특별히 설계된 열차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다.

그 열차를 타고 백두산지구로 이동촬영을 떠나는 제작단 성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이 뜨겁게 흘러들었다.

제작단성원들이 그 한없는 고마움을 안고 떠나간 그날밤 영도자님께서는 영화의 주역배우들과 연출가를 따로 불러 밤깊도록 시험촬영한 작업필름을 함께 보시면서 연출과 연기, 분장과 촬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울부짖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던 그분께서 문득 열차로 떠난 동무들이 이 추위에 더운 밥이나 먹으며 가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뇌이시는 것이었다. 배우들과 연출가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이 타고 가는 열차가 어디쯤 달리고 있을지 가늠이라도 해보시는듯 그윽한 눈길로 생각을 더듬으시던 그분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길주청년역을 찾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역장에게 예술인들이 추운 겨울날에 기차로 먼길을 가게 되는데 길주청년역에서 열차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철길안내를 잘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도와주라고 신신당부하시었다.

그분께서는 걱정으로 얼굴들이 상기된 배우들과 연출가에게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좀 쉬고 내일아침에 비행장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연출가와 주역배우들이 공항으로 나가니 그분께서 벌써

나와 2월의 맵짠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계시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자신께서도 함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모두 놀라며 날씨도 사나운데 그만두시라고 말씀올리자 그분께서는 이 추운 날에 예술인들을 보내놓고 우리만 뜨뜻한 방에 앉아있어서야 되겠는가, 나왔던김에 속시원히 촬영현지에까지 가보고와야 마음놓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비행기에 오르시었다.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걱정을 싣고 헬기는 바람세찬 하늘로 날아올랐다.

혜산에 도착하신 그분께서는 그길로 시내의 여러 촬영장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촬영준비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예술인들과 점심식사까지 나누시고서야 귀로에 오르시었다.

그후 그분께서는 매일 전화로 촬영현지의 실태와 집을 떠난 연예인들의 가정형편을 보고받으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뜨겁게 보살펴 주군 하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께서는 현지촬영에 나가 있는 한 여배우의 어린애가 앓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었다. 그분께서는 몹시 걱정하시면서 촬영소 책임일군에게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고 깐깐히 알아보시고나서 그 배우를 평양으로 불러 올리라고 하시었다. 그 일군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분초를 쪼개가며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이고 있는 때에 그 배우를 부르면 촬영계획이 어방없이 헝클어질 것이였다. 더욱이 그 여배우는 이제 몇장면만 더 찍으면 자기 과제가 끝나게 되어 있고 어린애의 치료대책을 원만히 세워놓았으니 어머니를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망설이고 있는 그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그분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어머니심정을 모릅니다. 어린애가 앓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서야 그 배우가 어떻게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고충이 없어야 영화창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무를 곧 부릅시다.

어머니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자기 자식인 것처럼 아이들 역시 한순간도 못잊어 그리는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입니다. 앓는 어린애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특효약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심한 정이 넘쳐흐르는 절절한 말씀이였다.

그 일군은 곧 백두산촬영현지에 전화를 걸어 그 배우를 부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분께서는 그제서야 다소 안심이 되시는듯 가볍게 웃으시며 무슨 구실을 붙혀 오라고 하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일군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그분께서는 다 준비된 동무들인데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야 그 동무가 오자고 하겠는가, 새로운 창작과제가 제기되었으므로 급히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깨워주시었다.

다음날 평양에 도착한 여배우는 긴급과제때문에 부른줄로 알고 집에 들리지 않고 곧장 촬영소로 달려갔다. 그런데 촬영소에서는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여배우를 반갑게 맞아주신 그분께서는 추운데서 모두 수고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들 잘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여배우가 그분의 물으심에 대답을 드리고 나서 사업정형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였다. 그분께서는 그것은 대체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으니 천천히 들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어서 탁아소에 가서 어린애부터 만나보고 오라고 이르시었다.

탁아소라니?!

금시 눈이 둥그래지는 그에게 촬영소 책임일군이 영도자님께서 그를 부르게 하신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배우는 너무도 생각외의 일에 부닥쳐 어쩔줄을



혁명영화 조선의 별 야외촬영장을 찾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몰라했다. 앓는다는 아이걱정보다 그것때문에 만사를 제끼고 불러주신 그분의 그 다심한 은정에 목이 메였다. 그는 그분께서 재촉하셔서야 마음의 진정을 찾고 탁아소로 향했다. 어린애는 병이 완치되어 아무일도 없었던듯 뛰놀고 있었다.

여배우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 어린애를 붙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쏟았다.

여배우는 그길로 되돌아서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깊이 머리를 숙인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기만 했다.

그러는 여배우를 더없이 인자한 눈길로 지켜보시던 그분께서는 그의 손을 이끌어 옆자리에 앉히시고 이제는 촬영현장의 소식을 좀 들어보자고 하시면서 금순이역을 맡은 배우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감기에 걸렸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떤가, 자위단장역을 맡은 배우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찍을 때 다친데는 없는가, 부식물은 무엇을 먹고 있으며 잠자리는 춥지 않은가고 일일이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밤으로 촬영현지로 떠나겠다고 말씀올리는 그 여배우에게 집에서 하루쯤 마음 푹 놓고 쉬고 가라고 이르시였다.

여배우가 기어코 떠나겠다고 떼를 쓰듯 고집하자 그분께서는 웃으시며 그러지 말고 내일 떠나라고 설복하시면서 자신께서 뭘 좀 보낼 것도 있으니 내일 역에서 만나자고 하시였다.

이튿날 역에 나가니 과연 그분께서 먼저 나와 계셨다.

열차에는 이미 그분께서 현지촬연 나가 있는 연예인들에게 보내시는 고기통조림이며 계란, 사탕, 과일 등속들이 정히 포장된채로 차곡차곡 실려있었다. 그분께서 고산지대에서는 미역이 좋다는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골라 푼푼히 보내라고 말씀이 계시어 미역까지 실려있었다.

그 여배우가 차에 오를 시간이 되자 그분께서는 추위란 인정사정이 없는데 이런 때에는 멋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든든히 입고 다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촬영현지에 가거든 모든 동무들이 몸건사를 잘하도록 하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친정집을 다녀가는 딸자식을 바래는 어머니의 심정이면, 멀리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이면 이에서 더하랴!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성이 있는 법이다.

영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백두고원의 혹한은 사나웠지만 연예인들은 그분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심장이 불같이 달아올랐다.

촬영가들은 얼어드는 촬영기를 가슴에 품어 녹이고 운전사들은 발전차가 얼세라 솜옷을 벗어 덮어주며 밤에도 발동을 끄지 않았다. 배우들은 너덜너덜한 홑옷차림의 분장의상으로 언 발을 눈위에 끌며 하루에도 몇차례씩 촬영기 앞에 나서곤 했다.

한없는 은정에 고무된 연예인들의 기세는 백두의 혹한도 지동치는 눈보라도 이겨내게 했다. 연예인들은 촬영에 필요한 귀틀집처마의 고드름을 보다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해 촬영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간 ≪고드름≫을 쓰지 않고 밤새껏 물을 한방울 한방울 떨구어 진짜 고드름을 만들었으며 언땅에 우물을 만들기 위해 강에서 얼음을 까다가 펴놓은 다음 그위에 나무로 우물방틀을 해놓고 기온이 제일 떨어지는 한밤중에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얼음이 엉켜붙은 ≪우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해발 2천미터가 넘는 소백산지구에서 촬영할 때에는 모자와 얼굴에 성에가 하얗게 끼는 것도 아랑곳 않고 목소리를 합쳐 혁명가요를 부르며 뛰어다녔다. 분장사며 장치사, 행정원들도 별목공옷을 걸치고 촬영기 앞에 나섰으며 배우들도 자기 화면을 찍지 않을 때에는 취사당번이 되고 의상관리원이 되어 함께 뛰었다. 오후 5시가 되어 해가 서산에 기울고 빛이 모자라 더 촬영할 수 없게 되면 허리를 치는 생눈을 헤치고 햇빛을 따라 산마루로 톺아오르면서 촬영을 계속하여 하루 촬영과제를 세배, 네배로 해제꼈다.

그리하여 단 40일사이에 장편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혁명적 대작으로 완성하는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최상의 질과 양을 보장하는 속도전의 모범이 창조된 것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과 다함없는 충성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다.

나는 동무들을 굳게 믿기 때문에 큰일을 맡깁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영화예술에서 창조된 속도전의 고귀한 모범을 지체없이 가극예술부문에 일반화해 나가시였다.

1971년 여름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각색한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하여 피바다식 가극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신 그분께서는 연이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파는 처녀≫, ≪금강산의 노래≫를 기념비적 걸작으로 창조할 대담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새로운 가극창조집단인 평양예술극단을 조직하시었다. 그런데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은 가극과는 인연이 없는 다른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므로 가극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일군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혁명가극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심심한 우려를 표시했다. 평양예술극단 연예인들도 가극집단의 성원으로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이 혁명가극을 창조한다는데 대해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께서는 평양예술극단의 책임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예술인들의 대부분이 당의 품 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들이 아닙니까. 또 그들은 주체예술을 꽃피워보겠다고 무대에 나서서 당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문제는 동무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이끌어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정치사업을 잘해서 연예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을 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주체예술을 떠메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피바다가극단에서 이미 창작하여 지금 공연중에 있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무대에 올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여기에는 어려운 창작과제를 받고 자신심을 못가지고 동요하는 연예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의 예술적 기량도 키워주자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첫걸음을 떼어주시는 사랑의 조치였다.

자기들을 혁명가극 ≪피바다≪공연무대에 불러주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연예인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을 듯했다.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면서 연습장과 무대에서 불꽃튀는 창작활동을 벌이었다.

인간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는 법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고무된 연예인들의 심장마다에서는 무비의 힘과 열정이 용솟음쳤고 지혜와 기량이 꽃피어났으며 마침내 창조의 빛나는 열매가 주렁지게 되었다. 배우라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학교를 갓 졸업한 나어린 가수, 오랜 배우생활을 해오면서도 아직 주연무대 한번 타보지 못한 연주가, 이곳 저곳에서 모여와 안면조차 미처 익히지 못한 연예인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달라붙어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혁명가극 ≪피바다≫를 훌륭히 재현해 냈다.

어느날 대성황리에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계속하고 있던 피바다가극단 연예인들은 평양예술극단에서 출연하는 예술공연을 관람하라는 통지를 받고 모란봉극장으로 갔다.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극장에 들어와 객석에 앉아있는 그들은 궁금증을 풀지 못해 서로 수군거이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불이 꺼지고 무대에 소개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소개자는 뜻밖에도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피바다가극단 연예인들을 위한 공연을 시작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을 그만 실언한 것이라고 단정한 관객들은 아뿔싸, 저 동무가 실수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객석의 여기저기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같은 연예인들끼리라 남의 일같지 않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피바다≫의 장중한 선율이 장내에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막이 오르면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라는 자막이 새겨지고 불타는 간도마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객석에서 놀라워하는 탄성이 한꺼번에 터졌다. 경탄과 의혹 속에 자기들이 수행하던 역형상을 객석에 앉아 지켜본 피바다가극단 연예인들은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열렬히 갈채했다. 공연은 나무랄데 없었던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한때는 이리저리 밀리우고 위축되어 연예인으로서의 전도까지 우려하고 있던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

서 친히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영도자님께서 지켜보시는 무대, 그처럼 부럽던 가극무대에 나선 연예인들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였다. 그 감격이 비상한 재능으로 승화되어 뜻깊은 공연의 성공을 더욱 훌륭히 장식했다.

공연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그분께서는 짧은 사이에 몰라보게 성장한 그들의 모습에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면서 분에 넘치게 치하해 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창조할데 대한 무거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그분께서 주시는 과업은 곧 믿음이고 사랑이였다.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받아안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연예인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굳게 믿기 때문에 큰일을 맡깁니다,

정녕 가슴이 후더워오르고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만한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말씀이였다.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된 연예인들 속에서 무거운 임무를 받아안은 책임감으로 하여 긴장해 있는 예술단 책임일군들을 보신 그분께서는 만시름이 확 풀리게 하는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애로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시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소탈하고 다정하게 들렸던지 한 일군이 그만 외람되게 주역을 맡은 배우들만은 그분께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렸다. 어느 다른 예술단체에서 명배우를 몇사람 뽑아다주었으면 하는 내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아직도 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로 발양시켜 높은 질과 양을 보장할데 대한 속도전의 요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군을 나무랄 대신 군중 속에 인재가 있다, 예술인들 속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주역을 맡을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을 훌륭한 배우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번 대담하게 달라붙어 해보라고 더욱 친근한 음성으로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믿음으로 떠밀어주셨지만 가극창조사업은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작품에 설정된 정황의 극적 매듭은 어떻게 풀어나가며 인물들의 운명선은 어떻게 처이해야 할지 풀기 어려운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배우들의 기량도 빨리 높아지지 않았다. 그분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채 하루하루 안타까운 나날이 흘러갈수록 어깨들이 처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과연 우리끼리 해낼 수 있기나 할까 하는 동요심까지 은근히 머리를 쳐들었다.

온 창작집단이 무거운 마음을 안은채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고 있던 1972년 4월 18일이였다.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신 영도자님께서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문득 극장을 찾으시였다.

창작적 성과를 안고 그분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기뻤으랴만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자책감에 휩싸여 있는 연예인들의 얼굴은 수그러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환히 웃으시며 왜 모두들 이렇게 풀이 주었는가고 물으시는 그분께 한 책임일군이 가극창조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태와 일부 연예인들이 신심을 잃고 있는데 대해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그분께서는 생각깊으신 안색으로 말없이 듣고만 계셨다.

극장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분께서 좌중의 무거운 분위기를 단번에 확 날려버리는 싱싱하고 저

력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나도 혁명가극창조집단의 한 성원이오!

나는 동무들을 도와서 이 혁명가극을 완성하고 동무들은 나를 도와 우리 당의 주체예술을 계속 꽃피워나갑시다!

모두의 가슴에 휴전직후의 어려운 나날에 농업협동화의 길에 들어선 농민들이 시련의 고비를 겪고 있을 때 몸소 평원군 원화협동조합을 찾으시고 자신의 존함을 조합원명부에 올리시면서 그곳 농민들을 새로운 승리와 위훈에로 불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오고 안팎의 원쑤들이 악랄하게 준동하던 1950년대 중엽에 강선의 노동자계급을 찾아가시여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호소하시면서 천리마대진군의 역사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음성이 울려오는 것만 같았다.

수그리고 있던 얼굴들을 경건히 추켜들고 그분을 우러르고 있는 연예인들의 눈빛마다에는 새로운 활기가 어리어 있었다.



그분께서는 천백배의 용기를 가다듬는 연예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작품형상방도를 토론해 주기도 하시고 막힌 고리들을 시원히 풀어주기도 하시였다.

어느날엔가는 가극의 주제가형상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온 밤을 지새우시고 새날의 아침노을이 동녘을 물들일 때 극장을 나서시였고 또 어느날엔가는 창작사업에 집념하여 피로에 몰린 그들이 축구경기장에 가서 머리를 쉬게 해주기도 하시였다.

머나먼 북방의 한 지방을 현지지도하고 계시던 여름 어느날 새벽에는 장거리전화로 가극창조집단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어 예술인들의 기세가 어떤가를 물어도 보시고 평양예술극단 예술인들이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데 대한 당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해 주기도 하시였다.

이런 크나큰 믿음과 하해같은 은정 속에서 평양예술극단은 한해사이에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해 냈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40일동안에 끝낸 기적에 못지 않은 것이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타오른 속도전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마냥 온 사회에 파급되어 사회주의건설을 활력있게 추동했다. 드디어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되였다.

이처럼 195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인 천리마운동의 봉화대에 불을 지핀 것은 강선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이였다면 197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의 도화선에 불을 단 것은 영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문학예술인들이였다.

그것은 정녕 문학예술인들이 약동하는 시대의 기상을 안고 시대의 선구자로 살며 투쟁하는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권화였다.

70일전투

줄기차게 발전하던 조선의 경제는 1974년 하반기에 이르러 뜻하지 않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10월초에 이르러 전반적인 생산실태를 검토한 데 의하면 농사는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작이였으나 공업부문은 대조적으로 계획과제를 미달하고 있었다. 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치밀하게 연관된 다방면적인 종합경제이므로 그 중에서 하나의 고리가 튀어도 전체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서 계획과제를 엄청나게 미달하고 보니 그 후과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공업전반이 심하게 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경영활동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1974년은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네 번째 계획연도가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 해 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당해연도의 연간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토의결정된 전망계획인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달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방침관철의 첫 문어귀에서 직면하게 된 난국을 뚫고 나가는가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연간계획을 완수할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찍이 없었던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놓고 매우 심려하시면서 10월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이 문제를 상정시키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당시까지의 생산실적과 부닥친 난관을 상세히 분석하신 다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간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대책안을 제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는 정무원과 위원회, 부의 간부들과 유능한 경제지도일꾼들이 다 모여 있었으나 아무도 얼른 대책안을 제기하지 못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경제지도일꾼들은 무거운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실책을 만회하려면 특별대책을 내놓아야겠으나 난관이 너무도 얽혀 있어서 신통한 생각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죄스럽고 안타까운 침묵이 한동안 흐르는 가운데 한 분이 모두의 시선을 모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시였다.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통절한 느낌과 그 어떤 결심의 빛이 어린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 분께서는 활달하면서도 저력있는 목소리로 경제부문일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당중앙이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전당을 이끄시기에 분망하신 그 분께서 그처럼 복잡다단한 경제적인 난문제까지 맡아 나서시다니. 모두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다.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기뻐하시며 **김정일**동지의 제의를 쾌히 승낙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그 어려운 과업을 맡게 되시었는데 그 때의 그 분으로서는 구체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이 있어서 맡아 나서신 것은 아니었다. 그 분께서는 노동계급의 충성심을 믿으시었고 노동당의 위력을 믿으시었다.

과업은 무겁고 날짜는 촉박하였다. 연말까지는 석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에 조성된 난관을 전격적으로 풀고 연간계획을 넘쳐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렵고 긴박한 과제를 놓고 심사숙고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대책을 찾아내시었다. 그것이 바로 경제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유명한 <70일전투>였다. 연말까지 남은 70일 기간에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다. 결국 그 분께서는 자신께서 제시하신 속도전 방침을 가장 불리하고 어려운 정황에서 몸소 적용하시어 그 위력을 증시 하여야 할 국면에 서시게 되었다. 곧 과학적인 대책이 뒤따랐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70일전투에 대한 결심과 구상을 밝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9일에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 간부들, 각 도당 책임비서들을 협의회에 부르시고 구체적인 작전도를 펼쳐 주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이번 70일전투는 전당이 사상전을 들이대어 경제사업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입니다. ≫

작전의 전투적 성격을 요약하여 말씀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경제 각 부문실태와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과제들을 분석하시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나 종합적이고 상세한 지 듣고 있는 간부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분께서는 나라의 경제실태를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 보여 주시고 나서 70일전투의 작전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목표: 연간계획을 넘쳐 완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진군로를 열어제낀다.

집중공세를 가할 대상: 경제의 모든 분야를 한 단계 높이 추켜세우는 것과 함께 난관이 조성되어 있는 채굴공업, 화물수송, 수출부문을 중심고리로 선정하고 거기에 주되는 힘을 넣는다.

전투에 참가하는 역량: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한다.

전투방법: 지도일꾼들과 생산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전을 강력히 벌여 속도전의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 생산자들의 사상동원을 위하여 신문, 방송, 예술활동의 주되는 힘을 생산현장에서의 경제선동에 돌리며 그 중에서도 중심고리인 탄광과 광산, 철도와 항들에 집중시켜 근로자들의 기세를 돋궈 준다.

전투지휘: 유일사령체계를 세우고 모든 생산활동을 통솔한다. 중앙에는 당과 정무원의 실무자들로 총참모부의 역할을 담당할 중앙지휘부를 꾸리며 각 도와 시 군, 주요 생산단위들에는 전권을 행사할 강력한 지도구루빠를 무어 내려보낸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3대혁명소조들도 이에 합세한다.

지휘성원들의 활동방식: 모든 간부들이 생산현지에 가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도하고 격려한다. 탄광 광산들을 담당한 간부들은 그 곳 막장에까지 들어가서 활동한다.

전투통보: 모든 생산단위에서는 전투기간 매일 전투실적을 군과 도를 거쳐 중앙지휘부에 보고한다.

간부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통이 크면서도 세밀한 작전조직의 이 놀라운 솜씨야말로 모든 일꾼들이 따라 배워야 할 영도의 과학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연달아 전투역량을 배치하는 사업도 전격적으로 진행하시었다. 그것은 매개 분야의 전투지표를 확정하는 것과 함께 대부대의 간부진을 그들의 각이한 능력에 맞게 무수한 초소들에 선발배치하고 그들의 임무와 사업방법, 생활보장대책까지 마련해 주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일이었다. 그 분께서는 전국의 2천여개의 단위들에 무려 만천여명의 우수한 간부들을 파견하셨는데 그 중에서 1,350여 명에 대해서는 몸소 매 개인들을 다 요해 하시고 지도대상과 구체적인 과업까지 일일이 밝혀주셨다. 그 분께서는 놀라운 수완과 열정으로 불과 몇 일 사이에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셨다. 이것으로 속도전을 벌이기 위한 대규모의 사전조직사업이 끝났다. 온 나라는 70일전투를 벌일 수 있는 준비를 끝내고 **김정일**동지의 전투개시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 날은 왔다. 10월 21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령관으로서 전투개시를 선포하셨다. 그 분의 부르심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섰다. 모든 단위의 지휘성원들이 앞장에 나섰고 생산자들은 한결같이 기세충천하여 전투에 진입하였다.

그처럼 전체 인민을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설 수 있게 만든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강력히 전개하신 사상동원사업이었다. 무슨 일에서나 먼저 대중의 각오와 열의를 높이는 사업을 필수적인 중대사로 앞세우는 사상론자이신 그 분께서는 또한 사상동원의 뛰어난 명수이셨다. 그 분께서는 강력한 지도역량으로 각급 당조직을 비롯한 모든 정치단체들을 일제히 분발시켜 간부들과 대중의 열의를 고취하게 하시었다. 모든 지휘성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낡은 사상잔재와 무책임한 작풍을 비판의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경쟁적으로 결의목표를 높이 정하고 집단적 혁신운동을 일으켰다. 그 분께서는 대중의 기세를 돋궈 줄 수 있는 온갖 선전선동수단들을 생산현장에 집중하셨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신문, 방송, 통신, 정기간행물들이 연일 생동한 현지보도, 특집기사, 방송야회, 축하방송으로 생산자대중을 고무하였다. 여기에 경제선동대들의 활동이 배합되었다. 전문예술인들만 하여도 열두개의 중앙예술단과 마흔여덟개의 지방예술단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생산자들의 일손도 도와주면서 매일같이 다채로운 예술공연을 벌이었다. 근로자들은 공장의 기대옆이나 높이 솟은 기중기옆에서 혹은 광산의 깊은 막장에서 예술인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고 기업소 기동예술선전대의 생기발랄한 공연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렇게 즐기고 난 뒤

면 모두의 일손이 부리나케 재우쳐졌고 누구나 앞을 다투어 어려운 일을 맡아 나섰다. 노래와 춤은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술이 이처럼 근로자들의 혁명적 생활과 유기적으로 배합되어 노동의 꽃을 피워 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무수한 고리들 중 가장 용이한 부문에 힘을 집중시키시었다. 70일전투는 그 전선이 매우 넓고 종심도 깊고 점령할 고지도 많고 뚫고 나가야 할 난관도 많은 전투였다. 그런 것만큼 중심고리를 찾아내어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 단 한 번의 추리 판단으로 채굴, 수송, 수출부문이 중심고리임을 단정하시고 그 해결방략을 가르쳐 주셨을 때 모든 일꾼들은 비로소 혼돈의 안개 속에서 혁신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공업 전반이 안고 있었던 주되는 난관은 채굴공업이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부문에 연료와 원료를 미처 대주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고 화물수송이 굼뜨고 대외수출부문이 뒤떨어져서 그 영향이 연관부문에 미쳐 생긴 심각한 난관이었다. 그 분께서는 노력자와 기술수단도 그 부문에 더 많이 더 먼저 보내 주셨고 지도역량과 경제선동대도 대규모로 꾸려 배치하시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개선대책을 세워 주시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짧은 기간에 경제전반을 일신하기 위한 전투에서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신 것은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모든 부문에서 연달아 기술을 혁신하며 생산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모든 탄광, 광산들은 매일 석탄과 광석들을 산악같이 싸올리면서 수송전선을 재촉했고 모든 화물열차와 화물자동차들은 연료, 원료들을 가득 싣고 끝없는 장사진을 이루어 공장, 기업소들에 연속 들이닥쳤다. 전변은 수출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 전반이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생산현장의 속보판들과 일간 신문들에서는 <새 기록, 혁신, 기적>이라는 글자들이 자리다툼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았다. 일단 전진을 시작하자 새롭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열을 지어 앞길을 막아 나서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전진노상에 난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70일 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는 비록 작은 드팀이라도 계획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어느 한 공장도 어느 한 직장도 어느 한 기계도 단 한 시간을 멈춰 세울 수 없었다. 삽시간에 전국을 동원하시고 전투목표와 중심고리를 옳게 선정하시어 전투승리의 근본조건을 마련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빠짐없이 장악지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의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난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풀어나가는 일대 기동작전을 민활하게 전개해 나가시었다. 생산의 크고 작은 거점들에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서도 그 분께서는 뛰어난 기질을 보여 주셨다. 어느 한 광산에서 뜻밖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온다는 긴급통보가 왔을 때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물을 보통 속도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그것이 그 광구 나아가서는 연관부문의 작업을 지체시킬 시간까지 계산하셨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 분께서는 지체없이 헬기로 고성능 대형펌프를 실어 보내 주셨다. 다른 한 광산에서 박토를 미처 운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 즉시에 대형화물차들을 긴급출동시키시었다. 그 어떤 난관도 그 분께서 세워 주신 영활한 대책에 의하여 적시에 극복되어 나갔다.

그 나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하루도 저택에서 밤잠 한 번 편히 쉬어 보지 못하시었다. 12월 어느 날 새벽에 있은 일이었다. 그 날 광산의 한 일꾼이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급한 일이 생겨서 **김정일**동지께 문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그는 그 분께서 아직 집무실에 계시겠는지 혹시 주무시는 것을 깨우지 않겠는 지 한참 망설이던 끝에 그 분의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즉시 연결되어 그 분의 활달한 음성이 울려 왔다. 그때까지 집무실에서 사업하고 계시던 그 분께서는 그 일꾼의 보고를 들으시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 때에 알려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다음 제기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도를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나는 언제나 이 방에 있으니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시간을 가리지 말고 알리라고 당부하셨다. 그 분의 집무실은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사업으로 분망한 70일전투의 총사령부였다. 전국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의회들도 그 집무실에서 열렸고 새로운 작전명령도 그 집무실에서 하달되었다.

그 분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여러 지방에 나가시어 걸린 고리를 풀어 주셨다. 황해남도

일대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 하시던 그 분께서는 무역항들에서 매일 같이 높이 쌓이는 수출품들을 미처 실어 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는 해주항에까지 몸소 나가시어 항을 현대적으로 잘 꾸밀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그 분의 현명한 조치로 그 후 동서해안의 여러 무역항들은 접안능력이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기중기들이 숲처럼 들어섰다. 결과 해주항만 해도 종전에는 15일내지 20일이나 걸리곤 하던 짐싣는 작업을 2-3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활한 지휘로 온 나라가 불꽃 튀는 전투장으로 되었다. 일을 한다는 말과 혁신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되었다. 누구나 자기의 일터를 혁명의 전연초소로 여겼고 초과달성 기록을 세우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였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의 노인들과 여성들도 생산현장을 도와 나섰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뜻밖의 사고로 압연기의 심장인 가열로 설비가 꺼졌을 때의 일이다. 가열로를 보수하려면 로안의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그 안타까운 순간 노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려하실 것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말없이 앞을 다투어 가열로의 안으로 번갈아 뛰어들어가 필사적으로 보수작업을 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경제선동대로 나가 있는 예술인들까지 로 안으로 들어가 보수작업을 한 끝에 가열로가 다시 가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둥켜안고 만세를 불렀다. 이런 일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2호 용광로에서도 있었다. 작업 중에 로의 윗부분에 고장이 생겼으나 용해공들은 ?내 한 몸의 심장은 멈출 수 있어도 주체공업의 심장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치며 일시에 로 위로 올라가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불꽃을 날리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쇳물.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바치는 충성의 마음이었다. 참으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무진장한 활력을 안겨 주는 속도전의 질풍 속에서 어느 부문, 어느 단위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영웅들이 속출되고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났다. 용양광산과 안주탄광종합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의 노동자들이 혁신적 성과를 시위하는가 하면 농촌제련소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6개월이나 걸린다는 크고 까다로운 설치공사를 14일 동안에 거뜬히 해치웠으며 조선부문의 노동계급은 대형무역선 왕재산호를 두 달이라는 단 시일 내에 최상급의 수준에서 무어 바다에 띄웠다. 사상혁신이 곧 생산혁신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런 영웅담을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뜨거우시었고 그들을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푸시었다. 하나로 이어진 이 사랑과 충성, 거기에서 조선의 무진장한 힘이 용솟음 쳤다. 그 분께서는 완강한 혁명적 전개력을 남김없이 구사하시면서 온 나라를 70일전투의 마지막 승리의 그 날에로 힘차게 인도해 가시었다.

마침내 전투는 끝났다. 전투기간 공업생산은 예전에 비하여 1.7배로 뛰어 올랐다. 채취공업과 수송, 수출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연간계획을 훨씬 초과완수하였다. 그 중에서도 앞장에 선 것은 채취공업부문이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전투전에 비하여 석탄은 1.8배 유색금속광물생산은 1.6 내지 2.8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철도화물수송은 2.3배, 수출계획은 2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1974년도 계획은 그 전에 비하여 117. 2%로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속도전방침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공업은 일시적인 부진현상을 깨끗이 가셨으며 속도전의 기치 하에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제는 공업전반이 새로운 높이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으며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는 그 뿐이 아니었다.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일솜씨가 새로와졌고 모든 간부들은 생산과 건설을 어떻게 작전하고 지도하며 속도전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실천적 경험으로 배울 수 있었다. 70일전투. 그것은 영명한 지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에 작용하는 백 천 가지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과학적으로 결합하여 온 나라를 혁신과 기적의 창조장으로 전변 시키신 혁명적 영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한 해도 저물어 생각이 많아지는 세말이 다가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수한 공로자들을 영예의 자리에 내세워 주는 것으로 추억에 남을 전투의 마무리를 장식하셨다. 3백 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노력영웅칭호를 받았고 15만여 명의 혁신자들이 국가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이처럼 대규모의 표창수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영웅중의 영웅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높은 표창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러나 하루 또 하루 나날은 흘러가도 그런 소식은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영예를 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시고는 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숱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 일상적인 사업에로 조용히 돌아가신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장 높은 영예를 올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제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열렬한 소원을 담아 1975년 2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 데 대한 정령을 채택하였다.

뜻깊은 전국영웅대회

이북 민중들은 제3차 개년계획의 첫 해인 1987년을 자랑찬 승리의 한 해로 빛나게 장식했다. 발전소 건설자들은 태천발전소 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했으며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힘있게 진행했다. 영원발전소와 남강발전소 건설도 적극 다그쳤다. 민생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자들은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마침내 첫 카바이트로에 불을 지필 수 있게 했다. 단천지구 건설자들은 단천마그네사이트공장 확장공사를 완공했으며 북부철길 건설자들은 동서부를 연결하는 철길 전 구간의 시설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제1단계의 250여 리 구간의 철길을 개통했다. 민중들은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한 해 사이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중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귀중한 열매들이 주렁지게 했다. 이로써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히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는 전체 민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 따라 나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을 시원으로 하는 이북민주의 영웅주의가 대중속에서 생활화, 보편화되어 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88년 5월15일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제하의 뜻깊은 담화를 하시었다. 담화에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이것이 현 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여기에는 온 사회에 개인의 이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영웅적 투쟁기풍을 세워 혁명과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되게 하시려는 웅심깊은 뜻이 깃들어 있었다. 새로운 투쟁구호는 민중들의 마음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데 대한 구호의 자자구구가 민중에 대한 사랑의 송가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삶보다 더 값진 삶이 또 어디 있으며 사회와 집단에 이바지하며 사는 삶보다 더 보람찬 삶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분의 부름따라 영웅적 투쟁의 길에서 자기의 한 생을 빛내어갈 의지와 자각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영도자님께서는 이러한 민중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 손길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하시는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그분께서만이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었다.

그분께서는 1988년 9월에 전국영웅대회를 소집하시고 전 민을 영웅적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전국영웅대회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혈전만리를 헤쳐온 영웅의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과 해방 후 평화적 건설시기와 6.25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배출된 2세, 3세의 공화국영웅들과 노력영웅들,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초소를 주인답게 묵묵히 지키면서 사회주의건설에 값진 공헌을 한 숨은 영웅들 그리고 조국과 민중 앞에 위훈을 세운 공로자들과 혁신자들이 참가했다.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함께 모신 대회장은 시종 감격의 파도로 설레였다. 35년 전에 평양에서 열렸던 첫 영웅대회는 미제를 타승한 전쟁시기의 전투영웅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대회였다면 이번의 영웅대회는 두 분의 위대한 영장을 함께 모신 역사적인 대회였다. 그래서 대회참석자들의 감격은 더 컸던 것이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1988년 2월중순부터 9월초순까지 사이에 그해 연간 과제를 9.9절 전으로 앞당겨 수행하고 공화국 창건 마흔 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벌인 역사적인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하며 200일전투를 2천일전투, 2만일전투로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을 절절

하게 호소했다.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자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했다. 영웅의 첫 세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루어낸 항일혁명투사 답게 백두산시절의 그 정신 그 투지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 길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 결의를 다지었다. 또 2세, 3세의 영웅들은 위대한 영도자님을 높이 모시고 항일혁명선열들의 영웅주의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국영웅대회는 전국의 영웅들과 민중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부른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전국영웅대회 후 전민을 새로운 200일전투에로 부르시고 이 기간에 민중들이 억센 담력을 지니고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건설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분의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영웅적 기상이 나래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 이 무렵 평양에서는 일대 건설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건설로 말하면 혁명의 성지 만경대지구에 새로 형성되는 광복거리건설과 5월1일경기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국제영화회관, 양각도축구경기장, 국제통신센터, 능라다리, 금릉동굴 등의 건설을 포괄하는 방대한 공사를 국경절 마흔 돌과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전으로 완공해야 하는 방대한 규모의 대건설이었다.

여기서 가장 어렵고 방대한 공사는 3만세대의 다층주택들과 여러 경기관들과 경기장을 갖추는 청춘거리를 포괄하는 광복거리건설이었다. 광복거리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의 기본건설대상의 하나였던 것만큼 그 건설은 축전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 건설의 주력은 청년건설자들의 부대인 속도전청년돌격대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이 대건설의 주역을 맡게 된 데는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크나큰 신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복거리건설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큰 문제로 나선 것이 건설역량을 편성하는 문제였다. 많은 건설자들이 있어야 했는데 어디에서 그 많은 건설역량을 뽑는가 하는 것이었다. 관계부문일꾼들이 여러 모로 타산해 봤으나 신통한 안이 나오지 않아 고심했다. 그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관계부문일꾼들을 불러 전국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추천하는 방법으로 건설역량을 꾸리라고 하시면서 당원돌격대와 함께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지도하는 속도전청년돌격대 및 각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돌격대를 광복거리건설에 동원하라고 일러주시었다. 일꾼들이 노심초사하여 찾고 찾던 명안이었다. 여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영도자님의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청년들을 광복거리건설에 동원시키는 문제는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이것은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서 힘있는 부대로 믿어주시는 영도자님께서만이 구사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사실 영도자님께서는 언제나 청년들을 믿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 일꾼들과 담화하실 때에도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우리당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굳게 믿고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은 우리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해야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분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섰을 때에도 그것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시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혜산과 만포 사이 630리 철길건설공사가 제기 됐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이 공사를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었다. 이 북부철길공사로 말하면 중중첩첩한 험산준령을 헤치고 수십 개의 역과 착굴, 철다리 등 각종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대건설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대건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믿고 계신 영도자님께서는 조선의 청년들은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신 것이었다. 이런 믿음을 받아안은 청년들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서 청춘의 지혜와 정력으로 북부철길공사를 훌륭히 수행해 나갔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지니셨기에 이번에도 평양시 대건설에서 가장 힘든 공사인 광복거리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었다.

그분의 크나큰 믿음 속에 평양에서는 청년건설사단이, 각 도와 철도부에서는 청년건설여단이 무어졌다. 청년건설사단과 여단 안에는 충성의 200일전투 청년결사대, 차광수청년돌격대, 김혁청년

돌격대, 서정애청년돌격대, 이수복청년돌격대 등이 조직되었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청년영웅전사들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평양시대건설에서 집단적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려는 청년들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 열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청년들에게 광복거리건설의 중임을 맡겨주시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웅적 투쟁을 끊임없이 고무해 주고 이끌어 주시었다. 국경절 마흔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데 대한 당의 부름 따라 전민이 200일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섰을 때였다. 광복거리 청년건설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그들은 200일전투 기간에 수많은 건설대상들 가운데서 어디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분께서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청춘거리, 체육경기관들과 축전 때 외국대표단들이 숙소로 이용할 5천 세대의 살림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곡예극장을 비롯한 서른여덟 개의 중요대상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청년건설자들은 횃불결의모임과 행진을 비롯한 여러가지 모임을 가지고 200일전투에서 혁신자가 되고 기적의 창조자가 될 것을 굳게 결의했다. 그들은 그 결의를 어김없이 실천했다. 참으로 그것은 전 해의 1. 4배인 공사량을 넘쳐 수행한 위훈의 창조였다. 그렇지만 영도자님께서는 이에 만족하실 수 없었다. 청년건설자들 앞에는 아직 적지 않은 건설과제가 남아 있었다. 영도자님께서는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2천일,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할 데 대한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이 더 큰 노력적 위훈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그분께서는 1988년 9월초에 광복거리건설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 하신 데 기초하여 서산호텔은 그해 10월중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곡예극장, 양강호텔, 5천세대살림집은 그해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새로운 200일전투 목표로 제시해주시었다. 이 목표는 200일전투가 시작되기 전의 같은 기간의 계획에 비해 115%나 장성한 계획으로서 이 목표만 달성되면 광복거리건설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청년건설자들은 그분께서 밝혀주신 새 목표를 향해 승리의 신심 드높이 두 번째 200일전투를 활력 있게 벌였다. 그들은 그 나날에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했다. 공공건물 건설자들은 평양대극장만한 건축물을 평균 3일에 한 동씩 일떠세웠고 살림집 건설자들은 14분에 한 세대씩 조립했던 평양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그때에 비해 세대당 면적이 4배나 더 넓은 현대적인 살림집을 평양속도의 절반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조립하는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가운데 광복거리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기에 이르렀다. 광복거리와 함께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평양시의 축전대상 건설물들도 훌륭히 완공되었다. 준공을 앞둔 광복거리는 한 폭의 명화를 방불케 했다. 평양의 서남쪽 변두리에 위치한 팔골 네거리로부터 만경대 갈림길까지 15리 구간의 100미터 폭의 중심도로를 따라 양 좌우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사각형, 원형, 깃발형, 계단형, 학형 등의 비반복적인 형태를 띤 20 내지 40층짜리 다층살림집들과 연건평 10만3천 평방미터나 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대적인 평양곡예극장, 서산호텔, 양강호텔, 광복백화점 등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광복거리의 한 갈래로 건설된 청춘거리의 서산축구경기장, 송구경기관, 역기경기관, 중경기관, 경경기관, 탁구경기관, 수영경기관, 배구경기관, 농구경기관, 배드민턴경기관들도 주체건축예술의 참 모습을 과시하였다. 광복거리만이 아니었다. 능라도에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15만 석의 5월1일경기장도 그러했다. 이 건설에 청춘의 지혜와 힘, 성실한 노동의 땀을 바친 청년건설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크나큰 노고와 사랑의 손길을 잊지 못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영광의 날이 왔다. 1989년 5월1일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5월1일경기장, 광복거리대도로, 평양곡예극장, 양강호텔, 서산호텔 준공식에 나오시었고 이튿날에는 광복거리의 봉사망들과 5천 세대의 살림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식에 나오시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녕 청년건설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이었다. 믿음과 사랑은 이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이번에 광복거리 건설자들이 큰 일을 하였는데 평가를 잘 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든다섯 명에게 노력영웅칭호를, 근 20만 명에게 여러가지의 국가수훈을 안겨주시었다. 그들 가운데는 수많은 청년건설자들이 서 있었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영도자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 것인가를 웅변해 주었다.

새로운 비례공식

허 담

주체 59(1970)년 어느날이였다.

이날 필자는 새로 설계한 사업계획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때 마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딘가 다녀올 차비를 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필자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시였다.

《왜 집행기일을 그렇게 오래 잡았습니까?》

《심사숙고하여 일을 처리해야 랑패가 없을것 같아 기일을 널널이 잡았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질이 떨어진다 그말이겠소?》

《예. 옛글에도 《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고 씌여있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면 놓치는것이 많겠기에…》

《《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낡은 비례공식입니다.》

《예?!…》

《《속도가 빠르면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것은 빨리 전진하기를 싫어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를 분칠할 때마다 바꿔쓰는 면사포입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는 지금 영화예술인들이 속도를 높이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기때문에 적지 않은 애를 먹고있습니다, 나는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 《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대작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다는것은 우리 나라 영화계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여서 필자는 그저 놀라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전투를 벌린지 며칠이 지나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동무도 시간을 단축하여 한달이내로 일을 끝내라고, 그때면 영화를 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필자는 정문에서 그이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필자가 일을 앞당겨 끝내고 찾아가니 그이께서는 영화를 함께 보자고 하시며 필자를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특색있는 종자를 어쩌나 잘 형상하였는지 필자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런 대작을 과연 40일동안에 만들었단 말인가?)

영화가 끝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창조과정은 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낡은 주장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나는 속도에 질이 정비례한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속도에 질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는 기성의 격언을 뒤집어엎은 새로운 비례공식이였다.


천리마대진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이끄는 탁월한 령도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 근본원천이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이 땅우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을 지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예지와 지략에 의하여 전개되게 된 보람찬 진군이라고 하면서 론설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은 승산이 있는 투쟁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 이것이 바로 조선인민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길에 오를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에 의거하여 전개되게 된 진군이며 그이께서 튼튼히 다져오신 위력한 정치적력량에 의하여 전개되게 된 진군이라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령도예술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심장을 움직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조선인민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길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령도의 위대성은 또한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정치를 펴나가시며 완강한 실천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켜나가시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지니신 실천가형의 위인이시다. 이 실천력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 담대한 의지이며 사회주의건설력량을 빈틈없이 편성해나가는 치밀한 조직력이며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일단 내세운 목표는 기어이 점령하고야마는 무비의 전개력이다.

론설은 인류는 멀지않아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솟아오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지지도의 길에 바쳐진 로고

(평양 주체 88년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올해 조선에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산소열법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비롯한 백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현실에 도입되고 전국도처에 큰 규모 수력발전소들과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일떠섰다.

특히 굴지의 안주탄전에 석탄지하가스화공업이, 동조선만연안에 제염공업이 새로 창설되고 12월5일청년광산, 11월28일공장, 대홍항부두 등 건설대상들이 련이어 완공되였다.

이 락관적인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비범한 예지와 완강한실천력, 불굴의 의지력에 원천을 두고있다.

그이께서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게 하며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것이 바로 자신의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하시면서 정초부터 온 나라 방방곡곡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불멸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과 기술로 담보해나가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뜻을 품으시고 올해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어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발전소건설과 전력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북방의 대홍단을 찾으시여서는 감자는 흰쌀과 같다고, 감자농사를 잘하는것도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감자농사혁명의 앞길도 밝혀주시였다.

희천, 만포, 덕천, 함경남북도, 강원도, 평안북도 등 중요경제지역들마다 그이의 현지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다.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단위에서 어려운 경제적난국을 뚫고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계기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여러해 계속된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은 아직 어렵지만 조선인민은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불변의신념을 안고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제2의 천리마대진군길을 구보로 내달리고있다.





1999년의 조선

(평양 주체 89년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88(1999)년은 조선인민이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력사적인 해였다.

이 투쟁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풍모,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해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전국적규모에서 추모행사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전체 인민이 주석의 유훈대로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모든 군인들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지난해에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시대의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압록강체육선수단 정성옥선수는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이름있는 우승후보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1등을 함으로써 민족의 기상과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그의 이 장거는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 굴지의 안주탄전에 석탄지하가스화공업과 동조선만연안에 제염공업이 창설되고 여러 건설대상들이 완공되였으며 산소열법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현실에 도입되였다.

강원도의 토지정리가 완성되였으며 대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이 추진되고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았다.

특히 열번째로 열린 8.15범민족통일대축전은 축전사상 처음으로북과 남, 해외의 3자가 한자리에 모인 대회합이였다.





김정일총비서 평안북도내 공업부문을 현지지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락원의 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주체 89.1.)

(평양 주체 89년 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안북도내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춘황동지가 동행하였다.

평안북도내 로동계급은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충천한 기세로 정초부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도안의 전체 로동계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기간 락원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12월5일청년광산, 량책베아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공장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현지지도사적비,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물직장당세포회의를 지도하여주신 력사적인 장소인 민주선전실을 비롯한 뜻깊은 사적물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을 전쟁승리에로 부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고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문제없으니 념려하지 마시라고 심장의 맹세를 아뢰는 10명 당원들의 불같은 웨침이 오늘도 쩌렁쩌렁 울리는것만같은 회의장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잊을수 없는 전화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지난날 자그마한 철공소에 불과하였던 락원기계공장이 오늘은 굴지의 대기계제작기지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락원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신포향주철직장, 유압기구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락원의 로동계급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산악처럼 일떠서 준마의 기상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은 전쟁시기에는 맨손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전후에는 재더미밖에 없는 빈터에서 양수기와 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만들어 당과 수령을 보위하여온 참으로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이룩한 자랑찬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전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는 10명 당원의 한사람들인 호천학, 황순화, 장홍준 영웅들과 부모들의 대를 이어 주철직장을 지켜가고있는 10명 당원들의 자녀들을친히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락원의 로동계급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전국의 모범이 됨으로써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넘친 말씀에 접한 락원의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께 끝까지 충직했던 10명 당원들의 그 혁명정신으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할 충성의 맹세를 삼가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구성방직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주체89.1)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기상인양 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공장의 여러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수자식조종선반, 볼반 등 능률높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업의 심장인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공작기계들을 연구개발하고 제작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공장의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12월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충성심이 낸은 또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인 12월5일청년광산의 개발과 광물생산 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만난을 이겨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5일청년광산은 화학공업의 기초원료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중요한 광산이라고 하시면서 능력확장공사를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량책베아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마직장, 정밀직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공장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훌륭히 꾸렸을뿐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질좋은 각종 베아링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이 점령해야 할 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제시해주시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의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신의주신발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엿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의주신발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공장들인것만큼 전체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천과 신발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공업부문의 전반적인 사업실태를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지침으로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의 로동계급이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안의 로동계급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며 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량책베아링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주체 89.1)

회주의경제진지를 일층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의지의 발현이며 무궁무진한 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는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들과 기계공장들,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이 많은것만큼 도의 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평안북도에도 현대적인 기계공업을 비롯한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창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거대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북도의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장을 활성화하는데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리용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이 장성하는 전력, 기계 및 경공업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개건사업을 부단히 진행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기업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충분한 보장조건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락원기계공장, 량책베아링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최근년간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부단히 추진시켜 생산을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공업을 21세기에도 손색이 없을 주체적인 공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제품들을 로동당시대의 맛이 나게 질좋게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에게 주인된 자각을 깊이 심어주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공업제품들은 높은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는것만큼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선렬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창조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정신으로서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불변의 진리로 깊이 간직되여있으며 로동당시대의 거세찬 맥박으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냄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도내 여러 공장들의 경험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우리 당의 구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렵고힘든 과업이라도 무조건 해내는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억센 무쇠마치로 빈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50년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신의주신발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주체 89.1)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또다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쳐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많은 공장들을 일떠세운 궁극적목적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데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간직하고 질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로동계급이 공장애, 향토애의 정신을 안고 공장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는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만난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적힘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량책베아링공장 로동계급은 누구나 경탄할만큼 공장을 참으로 훌륭하게 꾸려놓고 생산도 높이고있다고 하시면서 가장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문화적인 조선로동계급의 고유한 특질을 생활속에서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이들의 모범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한 조직성과 전투성을 가진 우리의 로동계급은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소유자들일뿐아니라 새 문화의 창조자들이고 향유자들이라고 하시면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직장과 공장을 항상 깨끗이 거두고 공장주변에 여러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 공원처럼 꾸리며 혁명적인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로동계급의 새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들리신 작업장마다에서 로동자들을 만나시여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고 살림집문제로부터 작업장의 온도에 이르기까지 로동자들의 생활을 세심히 알아보시면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로동자들의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로동계급에게 더 많은 부식물을 공급하며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안의 로동계급이 당의 위업을 앞장서 받들어온 선봉부대답게 앞으로도 혁명투쟁의 전렬에서 계급적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금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호소하시였다.

평안북도내 로동계급은 눈덮인 북방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몸소 새해 전투의 앞장에 서시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일편단심 어버이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평안북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철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당의 혁명사에 불멸의 화폭으로 찬연히 아로새겨질것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김정일총비서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89년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와 분장, 제대군인마을을 돌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계응태, 김용순 비서들과 장성택제1부부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대홍단1호발전소를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정형을 료해하시고 종업원들의 증산투쟁을 고무격려해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홍단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많은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생산용전력을 충분히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수천세대의 살림집들과 학교들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였으며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살림살이를 더욱 윤택하게 꾸려 가고있는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력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 생산된 전기를 분한 있게쓸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흥분장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농장의 감자농사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감자농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홍단군종합농장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산지대의 다수확작물인 감자농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감자생산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조건에서 수송조직과 저장 및 가공 대책을 미리부터 철저히 세워야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홍단군종합농장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자면 바람피해를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포전들의 크기를 알맞춤하게 정하고 방풍림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장의 영농작업의 기계화정형을 료해하시고 이 농장을 짧은 기간에 종합적기계화가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본보기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국가에서 이 농장에 대형화물자동차들과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각종 농기계들을 충분히 보장해 준 조건에서 위력한 기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단시일내에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백두대지에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 공산주의리상촌을 선참으로 일떠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홍단 5호발전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서두분장에 일떠선 제대군인마을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대군인 민원식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부엌과 살림방들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원식부부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서두분장의 포전교양실에서 대홍단군종합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로 빛나는 조선

(평양 주체 89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6돐이 된다.

그이께서는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년대를 펼치시였다.

60년대에는 문학예술부문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영화, 가극 등 여러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 나도록 이끄시여 문학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시였다.



서해갑문

1974년 2월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자연과 사회, 사람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두지휘하시여 70년대, 80년대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하여 경제건설력사에서 전례없던 성과들이 기록되고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무산-청진 대형장거리 정광수송관, 검덕광산 제3선광장, 서해갑문, 북부철길 등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그 위력을 보여 주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 섰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등 방대한 대상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90년대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검질긴 고립압살책동, 여러해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인민경제 전반의 생산감퇴 등으로 하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식량과 일상소비품마저 제대로 대주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인민은 이 년대에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잃는 대국상을 당하였다.

온 세계가 조선의 전도를 우려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적들의 군사적압력과 ≪핵사찰소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시였다.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김일성**주석의 영생위업은 세계를 경탄케 하고 있다.

그이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령도로 조선인민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거대한 힘으로 위성보유국의 대렬에도 당당히 들어 섰으며 강성대국건설의 기틀도 마련해 놓았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으나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은 아직 넉넉치 못하다.

그러나 전체 인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밝은 전도와 승리만을 확신하며 신심있게 전진하고 있다.



김정일총비서 함경북도의 공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평양 주체 89년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일과 2일 함경북도의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지도기간 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새로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 어랑군에 건설되고 있는 제염소, 청진양어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용광로직장,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모범적인 초급일군들과 혁신자들을 만나 주시였으며 기업소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제철소의 생산능력을 늘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책제철소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도 보아 주시고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선동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3월17일발전소를 돌아 보시면서 전력생산실태를 알아 보시고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철발전소를 비롯한 새로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리용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완공단계에 들어선 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반 건설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소금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내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함경북도의 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경북도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늘어 나는 철강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문제,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전력을 해결할데 대한 문제, 기계제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중소어업과 세소어업, 바다가양식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근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비서 김국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남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과 관계부문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를 받는 조선청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외국 벗들의 반향

(평양 주체 89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조선에서 청년문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고 하면서 그이를 청년운동에서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뵤르나르 콘리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여 주시였다.

청년들을 위한 명절까지 제정하여 주신것만 보아도 **김정일**동지께서 얼마나 청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청년들은 자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시대의 선구자로, 사회의 가장활력 있는 부대로 내세워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중국베이징시공청단일군대표단 왕보운단장은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을 참관하고 조선청년돌격대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룩한 자랑찬 건설성과에 깊은 감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청년영웅도로 건설현장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 주시였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

조선청년들과 함께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흘리고보니 중국인민과 조선인민은 뗄래야 뗄수 없는 전우들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는 조선청년들이 우리들의 마음까지 합쳐 고속도로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를 바란다.

뛰르끼예소년야영단 단장 제키 싸리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나는 청년들의 씩씩한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조선의 새 세대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훌륭한 교양을 받으면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김정일**동지께서 청년사업에 항상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오신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 함경남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89년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26일과 27일 함경남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지도기간 성천강에 건설된 발전소들과 6월4일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성천강32호발전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발전소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 보시면서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함흥수리동력대학과 도인민보안국에서 쓸모없이 흘려 보내던 물을 리용하여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훌륭한 발전소를 일떠 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광군 영광읍에 건설된 성천강29호와 30호발전소들을 돌아 보시고 영광군에서 전기문제를 풀고 많은 살림집들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성천강에 계단식으로 주련이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 보신 후 현지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며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6월4일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공직장, 연마직장, 완성직장에 들리시여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중소형발전소 내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영농실태를 자세히 알아 보시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두벌, 세벌농사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한 품종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 리용철,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태남,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풍기가 동행하였다.



김정일총비서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평양 주체 89년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계정밀기계련합기업소, 강계견방직공장과 발전소, 림산사업소, 협동농장들, 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계정밀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질 좋은 기계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계견방직공장의 여러 직장에 들리시여 생산정형을 알아 보시고 비단실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장자강에 새로 건설된 흥주청년발전소와 전기화된 문화주택마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흥주동에 새로 일떠선 전기화된 문화주택마을을 돌아보시였으며 제대군인 가정을 찾으시여 살림살이형편도 알아보시고 전기화가 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다 텔레비죤을 볼수 있게 좋은 텔레비죤수상기를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대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성간림산사업소의 림산마을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림산마을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강군 장평협동농장과 무덕협동농장,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농 및 축산실태와 누에치기정형을 료해하시고 농장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성간군 성간고등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실과 실험실 등을 돌아 보시면서 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성간군도로시설대 한 공훈도로관리원 가족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령길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강도학생소년들의 예술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강도의 전반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지에서 도의 인민경제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자강도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도 대오의 앞장에서 시각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문제,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축산 및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국토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문제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 김국태와 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안변청년발전소 건설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

(평양 주체 89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건설을 끝낸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제00135호 주체89(2000) 년 10월 4일부로 된 명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당과 조국 앞에 가장 큰선물을 마련하였다.

안변청년발전소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낸은 위대한 창조물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전력문제로부터 풀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한 자력갱생의 대기념비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에 주신 마지막 유훈교시를 붉은기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피 어린 투쟁을 벌려 끝까지 관철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세계굴지의 안변청년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2.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공사에 참가하여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 내고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지원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태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

(평양 주체 89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제00136호 주체89(2000) 년 10월 4일부로 된 명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것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태천발전소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송원, 태천 언제확장공사와 태천 5호발전소 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였다.

태천발전소의 완공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우리 나라에 제재를 가하고 봉쇄를 하여도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반드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시위한 일대 승리로 된다.

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겹쌓인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태천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과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지원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준다.



믿음과 사랑이 낳은 기적

(평양 주체 89년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청년영웅도로 건설현장의
청년돌격대원들

조선에서 수도 평양과 서해지구 도시 남포를 련결하는 100여리의 청년영웅도로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되였다. 이 고속도로건설은 주체84(1995)년 10월에 개통된 평양-향산관광도로(300리)와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였다.

고속도로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87(1998)년 11월 이 공사를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 주시였다.

가장 어려운 과업을 자기들에게 맡겨 주신 령도자의 더 없는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국의 200여개 시, 군에서 5만명의 청년들이 도로건설에 자원진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고속도로건설에 달려 나온 청년들이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건설자들이 건설장에서 첫 설을 맞을 때에는 갖가지 설음식을 보내주시고 햇감자와 포도가 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맛 보이도록 하시였다.

또한 청년건설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의 이름 있는 식당들에서 특별봉사를 받도록 해주시고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문화오락기재들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해 6월에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국가수훈을 비롯한 여러가지 표창도 안겨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청년돌격대원들로 하여금 간고한 시련과 겹쌓이는 난관을 이겨 내게 하였다.

실로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은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기계화수단도 연유도 부족하였고 세멘트와 강재, 목재 심지어 식량사정마저 매우 어려 웠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추켜 들고 밤낮이 따로 없이 맞들이와 마대, 함마와 정대로 청춘로반을 닦아 나갔다.

그들이 로반형성을 위해 져나른 토량만도 1, 400만여립방메터에 달한다.

이 과정에 그들은 력사에 류례없는 5만명대합창무대를 펼쳐 조선청년의 신념과 기개를 시위하기도 하였다.

청년들의 견인불발의 힘에 의하여 고속도로는 2년도 못되는 기간에 형식과 내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되였다.

조선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업한 여러 발전소들과 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89년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7일 조업한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총정치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일철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비서들과 박송봉, 장성택제1부부장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먼저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발전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에 주신 마지막유훈교시를 관철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전력문제로부터 풀어 나가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한 자력갱생의 대기념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당과 조국앞에 드린 로력적선물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발전소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2계단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굴지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고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는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조선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에서 건설한 내평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드린 창조물인 이 발전소를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이 출력이 높은 현대적인 발전소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자체의 힘으로 큰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총화하는 력사적인 시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창조물을 내놓을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맨손으로 이렇듯 훌륭한 발전소를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투쟁정신을 온 사회가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정신이라고 지적하시고 발전소관리운영과 생산된 전기를 효과 있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자력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난방화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으며 부업포전을 잘 리용하여 여러가지 남새와 알곡을 많이 생산하고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전사들에게 맛 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모든 군부대들에서 이들처럼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 보시였다

(평양 주체 89년 1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3일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청년영웅도로입구에 도착하시자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청년영웅도로

평양시 만경대갈림길에서부터 남포시입구의 청년다리에 이르기까지 100여리구간에 웅장하게 건설된 청년영웅도로는 우리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드린 충성의 로력적선물이다.

청년영웅도로는 여러대의 차가 동시에 달릴수 있게 시원하게 뻗은 차도와 록지구간, 원림구간, 특색 있게 건설된 다리들과 교차점들, 주변에 일떠선 수천세대의 살림집들로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고속도로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시원스럽게 뻗어 간 드넓은 로반과 특색 있게 건설된 립체다리, 도로주변에 펼쳐 진 풍치림과 살림집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로의 폭과 형성은 물론 모든 건축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업적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그들이 쌓아 올린 불멸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군인건설자들이 조국이 가장 간고한 시련을 겪고 있던 어려운 시기에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맨손으로 만년대계의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경이적인 사변은 투쟁하기 좋아 하고 혁명하기 좋아 하는 조선청년들의 위대한 정신력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참기 어려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 온 혁명의 전투적선봉대, 돌격대라고 하시면서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며 이 미더운 충성의 대오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가고 있기에 조선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영웅도로는 후대들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더 잘 꾸리고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로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한성룡,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비서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윤혁서기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박재경이 동행하였다.



령도자의 믿음은 세기적기적, 위훈창조의 원천

로동신문 론설



새로건설되어 부하시험단계에 들어선 상원시멘트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빨리 완공하고 조업을 앞당길데 대하여 가르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89년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풍파를 과감히 헤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령도자는 믿음과 사랑의 최고화신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믿음의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으로 자랑 떨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은 조선인민이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중소형발전소건설과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 감자농사혁명, 양어사업 등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창한 사업은 그 어느것이나 다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속에서 담력과 배짱을 키워 온 조선인민만이 해제낄수 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은 그어떤 시련도 과감히 뚫고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조선인민들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데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맥박친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오직 하나의 일념이였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들은 그 믿음을 안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의 참모습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대홍단군종합농장과 포태종합농장을 현지지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홍단군 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주체 89.11)

(평양 주체 89년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6일 대홍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대홍단에 새로 건설된 감자전분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 보시고 년에 수천톤의 감자전분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과 전분수송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현지에서 올해 이 종합농장의 감자농사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에서 감자정당수확고를 단번에 몇배로 끌어올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감자농사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급격히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그리고 감자농사에서 크게 은을 낸 각종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리용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료해하시고 종합농장을 짧은 기간에 종합적기계화가 완전히 실현된 본보기농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백산분장에 새로 일떠선 돼지목장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사양관리실태를 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현대적인 목장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목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대홍단4호청년발전소를 돌아 보시고 건설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올해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 종합농장이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대집단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7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흥분장의 제대군인마을을 돌아 보시면서 농장제대군인들이 감자농사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농장에서 자체로 건설한 포태3호발전소를 돌아보시고 산간지대의 전기화를 앞당겨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포태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수백동의 문화주택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비서들과 박송봉, 장성택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총비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평양 주체 89년 1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5일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

10여만정보의 논밭을 정리하면 40여만개의 논배미들이 줄어 들고 수천정보의 새 땅을 얻게 된다.

이 대자연개조사업에는 도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 각도에서 온 돌격대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토지정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와 평안북도에 이어 황해남도의 토지정리까지 끝나면 국토의 면모는 크게 달라지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대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끝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용순과 당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총비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90년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와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윤선을 비롯한 도와 시,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남신의주에 새로 건설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누직장, 치약직장, 화장품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화장품을 더욱 풍족히 공급해 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크나큰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우리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공장이므로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의주법랑철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현대적기술로 갱신해 나가며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좋아 하는 대중소비품인 법랑철기를 더욱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방도들을 밝혀 주시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기동선동대의 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의주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된장, 간장, 기름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이 쏟아 져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짧은 기간에 도처에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부식물이 대량생산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식료품공업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마련된것만큼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콩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의주시내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보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

로동신문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쇠돌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90년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6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의 그 어디서나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는것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시려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나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

경제사업에서는 멋따기놀음이나 허례허식이 아니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문제부터 풀어 나가며 공장을 하나 짓고 제품을 하나 생산하여도 인민생활에 실지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확고한 립장이다.

그이께서는 감자농사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들과 같이 오늘의 현실적조건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세워도 인민들이 그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하신다.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이 사업을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 있게 해나가는데 있다.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로부터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에 이르기까지 **김정일**동지께서 구상하시고 현실로 꽃 피워 가시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설계도들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유족하고 문명하게 해나가기 위한 높은 뜻이 그대로 구현되여 있다.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최상최고의것이 되여야 하며 오늘만이 아니라 강성대국의 래일을 생각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의지이다.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황해남도 안악군

위대한 장군님 모시여 청년들의 위훈 더욱 빛난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위원장



청년영웅도로 건설현장

(평양 주체 90년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붉은기총진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도착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고덕우위원장이 비행장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조선청년운동사에 뜻 깊게 아로새겨 질 전국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붉은기총진군대회가 열리게 된것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의 표시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와 기만에 넘어 간 청년들이 정신적불구가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여 전 세대들이 쌓은 탑을 허물어 뜨리고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청년동맹의 맹원된 긍지를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떠메고 나갈 주인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

오늘 청년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인 청년영웅도로를 등짐으로 보란듯이 건설한것도 우리 청년들이며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들 마다에서 청춘을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꽃 피우고 있는것도 바로 우리 조선청년들이다.

조국의 부름앞에서는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 드는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조국은 강하고 강성부흥의 래일이 앞당겨 지고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청년들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키워 주시였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내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선청년들처럼 긍지 높고 행복한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조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격동적인 성과들에 접할 때마다 조선민족, 조선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고 있으며 조국과 숨결을 함께 맞추어 일해 나갈 불 타는 열의로 충만되군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총련애국사업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사업에 적극 헌신해 나가겠다.



청년중시사상으로 붉은기총진군을 이끄는 위대한 령도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5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청년들이 주체위업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력사의 새 세기를 개척하는 당의 청년전위로 훌륭히 자라나고 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 주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온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의 사상과 령도는 조선에서 청년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이 창조되고 청년들이 주체위업을 떠밀어 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당의 이 구호에는 청년들을 당의 참된 아들딸로 키워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청년대오는 자기 수령만을 믿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였고 당의 의도와 구상을 피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받들어 간 결사관철의 돌격대였다.

그리고 고상한 정신과 숭고한 도덕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나래치게 하고 아름다운 기풍이 차넘치게 한 가장 활력있는 부대, 공산주의미풍의 선구자였다.

청년중시의 위대한 사랑속에서 당의 청년전위로, 사회주의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끄떡없다.

신문은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의 영웅, 기적의 영웅이 되려는 조선청년들의 확고한 신념과 불타는 맹세에 대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당의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이려는것은 조선청년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김정일세기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청년영웅이 되자는것이 오늘의 새 세기 진군에서 조선청년들이 높이 든 충성의 구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위대한 손길아래서 자라나 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된 청년들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주체의 강성대국이 반드시 일떠서고야 말것이다.

청년중시사상을 변함없이 틀어 쥐고 새 세기의 진군을 다그쳐 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끊임없이 이어 지는 현지지도

(평양 주체 90년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외국방문의 길에 이어 계속 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20여일간에 걸친 로씨야련방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 오신 날은 지난 8월 18일이였다.

인민들은 그이께서 5만여리에 달하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를 순간이나마 푸실것을 간절히 바라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시는 길로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를 시찰하시였으며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로동계급과 상봉하시였다.

26일에는 룡포혁명사적지와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발굴한 울림폭포를 찾아 주시였다.

28일에는 최전연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관하 초소를 시찰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갈마휴양소를 방문하시여 휴양중에 있는 비행사들과 담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이것은 멀리에 있어도 가까이에 있어도 오직 인민군군인들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고 계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적풍모를 보여 주는 단적실례이다.

지난 1월에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5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고 조국에 돌아 오시여 21일부터 23일까지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의주시내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낼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외국방문에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김정일**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더욱 힘 있게 고무추동해 주고 있다.

김정일총비서 함경남도안의 건설자들에게 감사문

(평양 주체 90년 9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성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함경남도안의 건설자들에게 26일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감사문에서 함경남도안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성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33개의 중소형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모든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성천강계단식발전소들이 건설됨으로써 함흥시를 비롯한 여러 시, 군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살림집전기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도안의 로동자, 기술자, 설계원들과 가두인민반원들,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성천강을 다스려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중소형발전소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시였다.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 성천강 25호발전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리태남책임비서, 도인민위원회 김풍기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가두인민반원들, 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함경남도안의 건설자들은 공사기간 수백만립방메터의 토량을 처리하고 7만여립방메터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발전소건물과 물길굴 등을 일떠세웠으며 수십키로메터에 달하는 물길과 제방도로를 새로 건설하였다.

이들은 수십대의 발전기와 수력타빈, 13종에 690여대의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등 전력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해 냈다.


평양시


청춘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천리마거리


청광거리


고층살림집


문화주택

